

2026년 2월 안용주 선교사 가정 기도 편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6:35)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길 소원합니다. 이번 기도편지는 우물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합니다.



작년 담임목사님께서 단기 선교팀과 오시면서 귀한 우물 선교 헌금을 전해 주셔서 우물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물사역을 한다하니 많은 선교사님들이 벌써 그 힘든 사역을 할 것이냐는 말에 저는 뭐가 힘든가 했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최대한 많이 공부하고 많이 다녀보고 좋은 업체를 만나도록 기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우물들을 방문하고 공부하면서 왜 어려운 사역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우물을 파는데 1m 당 55불에서 60불이 들어갑니다. 깊은 우물은 200m 정도를 파는데, 200m를 파고 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10000불 정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물을 파는데 얼마가 드는 것입니까?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물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어홀’이라고 불리는 우물과 ‘핸드펌프’ 우물입니다.



(위의 사진 왼쪽이 ‘보어홀 우물’, 오른쪽이 ‘핸드펌프 우물’)

‘보어홀’ 우물은 200-300m 까지 깊이 들어가는 우물이고 그러기에 깊이 파는 장비와 그 물을 끌어 올릴 좋은 펌프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역지 처럼 전기가 없는 곳에는 태양광(솔라) 장비까지 더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3만불-4만불이 들어갑니다. (땅을 파서 한번에 수원을 찾았을 경우입니다.) 물 양도 많고 좋은 시설이지만 초기 비용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장 시 현지 교회나 마을에서 감당하기에 관리 비용이 너무 비싸 멈추어 있는 우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핸드 펌프 우물’은 최대 70-80m까지 뿐이 못 들어갑니다만 비용이 4000불 선으로 저렴하고 고장시 관리 비용도 보어홀에 비해 저렴합니다. 80M 안에서 물이 있어야 합니다.

‘보어홀’의 장점은 깊이 물을 찾을 수 있으나 설치 유지 비용이 높고, ‘핸드 펌프 우물’은 80미터 이상 깊은 물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비용이 좋아 현지 교회나 마을이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보어홀” 보다 갈릴리교회와 벤엘교회 그리고 필요한 마을들에 “핸드펌프 우물”을 설치하는 사역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핸드펌프는 돈이 되지 않기에 깊은 산골까지 업체들이 잘 안오려 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업체를 잘 못 만나 계약금만 보내고 사라져 버린 업체들이 있어서 업체 선정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이 하는 곳이 아닌 체계가 갖추어진 업체를 찾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이툼비 지역이나 근처에 그래도 규모가 있는 므윙기 지역에도 정식 우물 업체가 없어서 맘이 힘들었습니다. 좋은 회사 위한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짜잔~!!!!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얼마전 므윙기 지역을 지나며 새로 생긴 간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큰 회사에서 므윙기에 지점을 만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주시지만 기도하게 하시고,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업체를 만났으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이 이어졌습니다. 케냐의 폴레 폴레 문화 (천천히해야 복이 온다)로 약속했던 물을 조사하러 날이 계속 미루어 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툼비 갈릴리 깊은 산골 교회까지 업체 차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L로드를 통해서 땅 속 물을 찾고 전자 기기로 물이 많은 곳의 포인트를 찾는 일이 하루 종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3곳의 물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물,지질 분석에 3일이 걸립니다



물 포인트를 찾아 기쁨 맘으로 나무 못을 박는데, 제 자세가 어설픈지 함께 오신 교인들이 즐거워하십니다. 나무 중 푸르게 보이는 것은 물 없이도 사는 가시 아카시아 나무와 다른 종의 가시 나무들입니다.



헌물로 물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교회 마당에서 키우던 옥수수는 건기를 못 견디고 모두 말라 버렸습니다. 우물이 성공하면 교회 안이 더 풍성하고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물과 토지 조사를 결과, 핸드펌프 마지노선인 70-80M 정도에 물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업체에서는 (비용이 높은) '보어홀'로 진행을 하기 원하나 원래 계획대로 '핸드 펌프 우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땅을 파는 정부 허가와 우물 설치의 과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충분한 물이 나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편지를 통해서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벤엘 교회와 갈릴리 교회 사역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스와힐리 설교를 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유창하진 않지만 많이 편해졌습니다. 설교 중에 한국어와 스와힐리어 찬양도 부르고 아이들을 불러서 짧고 재미있는 연극도 시키며 즐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만 즐거운 것 아닙니다^^;;)



평일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물 사역이 잘 진행되면 다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장학사역'이었습니다. 먼저 장학헌금을 주신 분이 계셔서 학업을 멈추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쉽지 않지만,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역에 대해서는 다음 선교편지에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작년 단기 선교팀 권사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전도지를 아직도 잘 사용하며 오가는 길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누는 우유와 크레용에 관심이 더 있지만, 그 사랑이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햇수로 4년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적응한 듯 하나, 전기, 물이 없는 날은 여전히 맘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의연히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삼촌이 보내주신 한복이 세달만에 배를 타고 와 학교 인터내셔널 데이에 예쁘게 입고 찍었습니다. 아래는 유진이가 그린 우리 가족 모습입니다.



<기도제목>

1. 갈릴리, 벤엘교회 우물 사역이 잘 진행되도록
2. 이튿비 산골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도록
3. 저희 가족들 주님이 지켜 주시길, 영육의 건강 위해서 저희도 기도해주는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